

공적 복지가 실패한 자리에서, 산재 이후 삶을 지속시키는 관계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경험과 대응 전략」

최서영 회원, 서강대 사회학과 박사 수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5 독자연구 공모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보고서 작업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 경험을 드러내고 산재 대처 과정에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안전망 역할과 그 특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책임자 황지영)은 이주노동자가 한국 노동시장에서 위험한 일자리에 배치되는 점, 공적 안전망(산재보험) 접근성이 낮은 점,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적 복지의 원천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점에 주목했다. 산재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산재 대처를 위한 공적, 사적 자원이 모두 불충분한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한국에서의 산재 이후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연구 주제로 삼았다. 연구팀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안적 자원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안전망 역할에 초점을 뒀다.

국적별 공동체와 같은 상대적으로 더 직관적인 개념을 두고, 에스닉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선택한 이유는 이주자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¹⁾의 한 형태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주자 네트워크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성격에 주목할 경우, 특정 시점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로 협소하게 포착될지라도 장기적으로 조력을 주고받는 위치가 고정되지 않음을 강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및 전문 산재 조력자(이주 단체 활동가, 법조인 등)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오랜 기간 이주노동자 조력을 해온 연구 참여자에게 일상적인 절차나 사실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묻고 또 들으며 배울 수 있었다. 공상이나 산재보험 신청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5명과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을 여러 번 읽고 한 장을 할애해 이들의

1)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 속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보유하지 않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관계 자체와 그 관계를 통해 획득되는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 과정에서의 취약성뿐 아니라 대처 과정에서 동포로부터 조력을 얻은 경험과 산재 전후 삶에서 발견되는 조력자로서의 경험을 읽을 수 있었다. 산재 대처 과정에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 중 대표적인 것은 긴급 안전망과 산재보험 접근 통로였다. ‘긴급’이라는 수식을 붙인 이유는 사업주의 인권 침해적 산재 대처에 직면한 이주노동자는 가까운 사이부터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동포로부터 관대한(때로는 친밀한) 조력을 획득할 수 있지만 그 조력에 의지해 치료와 요양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스닉 네트워크 내에 산재보험 신청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조력자와 이들과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이들과의 만남이 ‘운’에 달려 있다는 점은 중요한 한계였다. 이와 같은 비공식성에서 비롯되는 예측 불가능성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 과정을 “이리저리 헤매는” 상태의 연속으로 만들어 위험을 증가시켰다. 동시에 신뢰할 만한 조력자를 만나는 것 역시 운에 달려 있다. 에스닉 네트워크는 영리 산재 조력자(법률 전문가 등)에게 고객을 확보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약탈적 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는 입소문이 난 조력자의 존재로 제한적이나마 보완되고 있었다. 이는 누적된 문제 해결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형성된 이주민 사회의 집단적 평가가 에스닉 네트워크의 산재보험 접근 통로 역할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팀이 초기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모집 방식의 영향으로, 연구에 참여한 이주 산재 노동자는 모두 도시 지역 남성이었는데, 이주단체의 조력을 받아 산재 신청을 했거나 사업주와 원만히 공상 처리를 한 성공 사례에 해당했다. 물론 성공 사례라는 것은 결과적인 평가에 불과하지만, 본 연구가 연구 참여자 특성상 에스닉 네트워크의 안전망 역할을 실제보다 강하게 포착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한계로 밝힌다. 또한 공상과 산재 신청에 모두 실패한 사례와 여성/농어업/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 경험을 다소 누락하고 있는 점 역시 한계이다. 다만 연구팀에게 연구 수행 과정은 고되고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류를 허하는 구조와 진지하게 마주하는 계기였고, 동시에 구조화된 취약성 위에서 조력 주고받기를 반복하며 한국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존경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 안전망으로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알터**



▲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경험과 대응전략 (2025 독자 연구)